

입당송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ㄴ-39

복음환호송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이현수 바오로 신부 |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장

순교자들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느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순교자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의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 곁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저 빈손일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받아들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뭔가가 없다고 불만이었고 그래서 아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무엇’이라는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너

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불안해서, 용기가 없어서 여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나’와 ‘하느님’ 뿐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욕심을 비우고 그 안에 십자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죽음 앞에 두려웠을 텐데도 순교자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도 순교자들과 같은 당당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정말로 의미 있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후손인 형제자매 여러분!

순교자들의 용기 있는 삶을 본받기로 다짐해 봅시다! 단순히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 봅시다! 조금 더 순교자 현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발자국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신리성지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조선의 많은 순교 성인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자선 토마스는 다블뤼 주교님께 집을 내어드렸고, 황석두 루키는 주교님을 도와 천주교 서적을 저술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들 역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교회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닐까 묵상합니다.

김문숙 요셉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배꼽에 굶는 성호경

밖에서 묵주 반지 혹은 묵주 팔찌를 한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성당 다니세요?” 하고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 덕분에 훨씬 빨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크게 성호경을 굶는 형제자매님들을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제가 바로 밖에서 크게 성호경을 굶는 자매님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들이 볼까 싶어서 얼른 배꼽에 성호를 굶던 소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2018년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신도 단체 ‘복음화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 조건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골프채를 선물 해주시는 대신 복음화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꽤 긴 시간 우여곡절 끝에 복음화학교 청년 과정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복음화학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도 없이 듣고 새겼던 말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방에 크게 써 붙여 놓고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의 시작과 끝에 성호경을 굶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스튜디오에 계신 감독님들을 비롯해서 부조종실에 계신 많은 제작진 중 몇 분은 꼭 한마디씩 하십니다. ‘성당 다니는구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몇 년을 냉담하시던 카메라 감독님께서도 ‘나도 성당에 나가야 하는데...’ 하시곤, 몇 주 뒤에 추기경님께서 본당에 오셨었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성호경이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는 없으니, 제 모습을 보고 ‘그거 뭐 하는 거니?’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신이 나서 성호경을 굶는 거라고, 저는 성당에 다



허송연 클라라 | 아나운서

닌다고, 허송연 클라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성당이나 집 안이 아닌 곳에서는 조용히 배꼽에 성호경을 굶거나 성호경은 생략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음화학교에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생각만으로 끝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을 생활 속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제가 자주 할 수 있고, 최선이면서도 쉬운 방법은 성호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호경은 작은 행동이지만, 마냥 작지만은 않으며, 한 번이라도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무엇보다 바치는 그 순간 제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송 전후에도, 식당에 가서도, 예전처럼 누가 볼까 싶어서 얼른 배꼽 위에 성호경을 굶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크고 정성스럽게 성호경을 굶는 일이 하느님과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는 저의 주문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이 주문은 제가 살아가는 데에서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큰 힘을 주고, 그런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컷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0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20세기 초 중반 가톨릭교회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령론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도미니코회 소속 이브 콩가르입니다. 그는 예수회원 앙리 드 튀박과 함께 프랑스의 ‘신신학’(新神學 Nouvelle théologie 전통적 스콜라 신학에서 벗어나 성경과 교부들 문헌을 새롭게 해석)을 전개합니다. 그는 교회론과 성령론 관련 다수의 저작을 발표했으며, 특히 ‘성령론적 교회론’ 즉 교회의 친교와 복음화 문제를 성령을 통해 이해하고, 성령에 근거한 구원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친교와 일치, 생명력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 관련 지식은 많지 않아도, 성령 체험은 가능합니다. 특히 전례와 성사 안에 작용하시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시고, 그분을 현존시키시는 성령에 대한 체험은 가능합니다. 이브 콩가르는 그의 저서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제3권에서 성사와 전례 중 성령의 역할, 특히 ‘성령 청원 기도’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사제서품식 중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치는데, 이 예식 중 가장 핵심인 주교와 사제단의 안수기도는 성령 청원 기도와 연결되고, 이 기도 후 사제로 서품됩니다. 성령의 활동 없이 성사적 효능은 불가능합니다. 미사 중 예물 봉헌을 마치고 성찬의 전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사제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감사기도 제2양식) 하며 제대 위 예물에 손을 펴 얹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성령 청원 기도입니다. 이때가 미사 중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데, 봉헌된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축성해 주시도록 기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미사 중 성체와 성혈의 축성과 거양 후 성령을 부르며 그리스도인 일치를 기원하고 성령 청원 기도를 다시 바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감사기도 제2양식).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성사와 전례 안에서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올바른 성령론이란 반드시 그리스도론과 연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올바른 그리스도론 역시 성령론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콩가르가 강조하는 성령론적 신학과도 동일합니다. 하느님의 구세사 안에서 성자와 성령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가톨릭 신학의 강조 사항입니다. 삼위의 하느님은 서로 구분되면서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하느님 세 위격의 공동 작업이다. 삼위가 오직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셨듯이, 그 활동도 유일하고 동일하다 … 한편 각 위격은 자신의 개별적인 위격의 특성에 따라 공동 활동을 하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8항) 성령 하느님 역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느님이시고, 항상 성부와 성자와 함께 활동하시며, 동시에 성령만의 고유한 활동도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힘을 교회에 유지, 보존해 주시고, 모든 이 안에 머무시면서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지구와 약자를 함께 돌보는 생태교육을 합시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찬미받으소서』, 160항)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면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으로 찬미받으소서 여정은 생태 교육의 강화를 큰 목표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격차가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회적, 생태적 위기의 상황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남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통합 생태론에 따른 교육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약자들과 공동의 집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속해서 적용할 때입니다.

통합 생태론을 따르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먼저, 모든 이가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해 모든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제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야 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생태적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실 밖에서 산과 들, 하천과 바다, 도시의 거주지 부근 환경의 오염 정도를 살피고, 필요한 곳은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는 데 힘을 더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교육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

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교육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생태 교육이 이루어졌고 유아들과 어린이들이 교육받아왔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교육이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공동의 집과 약자를 돌보는 생태 교육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지구와 사회적 약자에게 점점 더 고통을 주는 이 문명을 바꾸어나갈 교육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금 커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라는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교육과정이 재물을 쌓고 섬기는 일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지 성찰하고, 필요한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바라보고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찬미받으소서』, 208항)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필요한 생태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배운 바를 함께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감독 케네스 브래나

벨파스트는 북아일랜드의 수도(首都)입니다. ‘수도’라고

해야 인구 29만 명(현재)의 작은 항구도시로 오랜 세월 인종, 종교, 독립의 갈등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영화 <벨파스트>는 그 아픈 역사가 시작된 1969년 그곳에 살았던 아홉 살 소년과 가족이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버디(주드 힐 분).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케네스 브래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50년 전 벨파스트의 동네 풍경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저녁 먹어.”라고 소리칠 때까지 공놀이와 전쟁놀이를 하며 골목을 뛰어다니고, 이웃들은 옆집에 접시가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지냅니다. 그런 곳에서 갑자기 개신교인들이 돌과 화염병으로 천주교인들을 공격합니다. 골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는 통행을 제한하고,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적’이 됩니다.

<벨파스트>는 그런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동심을 잃지 않고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소년을 지켜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애쓰는 소년의 아버지의 고민과 아픔, 정겹고 익숙한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이사하기를 주저하는 엄마의 모습도 그려냅니다. 물론 특별한 풍경은 아닙니다. 그 시절의 ‘나’와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보다 <벨파스트>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버디의 할아버지(키어런 하인즈 분)와 할머니(주디 덴치 분)입니다. 부드러운 대화로 손자에게 사랑과 용기, 희망과 미래를 심어줍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인

영화 ‘벨파스트’

지혜롭게 잘 나이 들어야 합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캐서린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손자에게 인내심, 평화의 기도, 사랑의 용기와 정성을 일깨워줍니다. 영화에 빠진 손자와 같이 극장에도 가고 영화 얘기도 나눕니다.

억지로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런던으로 가서 살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누군지는 나만 알면 돼. 넌 버디야. 벨파스트 출신이고, 온 가족이 널 위하지. 네가 어딜 가든 무엇이 되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달나라로 가거라. 런던은 인간에게 작은 걸음일 뿐이다.”

버디의 아버지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느새 편 가르기에 빠진 버디에게 “우리 동네엔 누구 편 같은 건 없어, 전에도 없었고.”라고 말합니다. 버디가 종교가 달라 캐서린과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친절하고 올바른 아이 둘이 서로 존중한다면, 저 아이와 가족 모두 언제든 우리 집에 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그들이 거창한 삶을 산 것도, 대단한 지식이나 철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석탄 광부로 살았고, 할머니는 가난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했고, 자신의 삶과 가족과 이웃의 평화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비바람과 햇빛으로 숙성되어 삶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나이를 잘 먹은 노인은 훌륭한 포도주와 같습니다. 지혜롭게 잘 나이 들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노인이 더 이상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교황께서는 이것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사명이며, 진실하고 참된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투박한 형태 속에 담긴 신앙의 숨결

우리가 맞은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따르다가 생명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신앙인의 모범으로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에 순교 정신을 본받는 것은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성화나 성상을 제작하여 사람들을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이나, 십자가의 길, 순교자 모습을 주로 제작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상을 보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른 분들의 고귀한 삶을 떠올리며 본받고자 다짐합니다.

이춘만(크리스티나, 1941-) 작가는 조각가로서 한평생 거의 성상 조각에 헌신했습니다. 여러 성상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과 모습과 온갖 시련 속에서 묵묵히 신앙을 증거한 분들의 모습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상과 십자가의 길 제14처,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의 형상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작품 가운데서 큰 주목을 받는 성상은 절두산 순교성지 뒷마당에 있는 절두산 순교 기념비(2000년)입니다. 가운데 큰 칼 모양의 주탑과 잘린 머리를 올려놓은 우측 탑에는 절두산에서 순교한 분들을 화강석에 새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 이춘만, 2003년, 명동대성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넣었습니다. 또 좌측 탑에도 이곳의 순교자들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8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는 절두산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순교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절두산 순교 기념비 | 이춘만, 2000년, 절두산순교성지

이춘만 조각가의 작품은 매우 거칠고 투박하며 강렬하게 보입니다. 대담한 터치와 형태 속에 절실하고 고귀한 신앙의 숨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성상의 조형적인 구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새겨 넣었습니다.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한 성상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성당과 수도원, 성지와 교회 기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울대교구에 명동대성당, 용산성당, 수유동성당, 수유1동성당, 신천동성당, 번동성당, 절두산 순교성지 등에 작가가 빚은 성상이 있습니다.

오늘(9월 18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경축 이동)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흥근 신부	춘천교구 파견	휴양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3년 9월 19일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37세)
- 1948년 9월 25일 박동헌 마르코 신부(55세)
- 1980년 9월 20일 이문근 요한 신부(62세)
- 2002년 9월 22일 박고빈 시메온 신부(67세)
- 2004년 9월 25일 박고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8세)

교구정월맞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9월19일(월) 10시30분, 광장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내일생의 치유
때, 곳: 9월20일~12월20일 매주(화)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담은꼴 도예전: 1전시실
제3회 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정기전: 2전시실
우재근 꽃칠화화전: 3전시실
전시일정: 9월21일(수)~26일(월)

제32회 한국가톨릭매스컴대상 공모

① 신문·출판, ② 영화·TV, ③ 라디오·인터넷, ④ 교구·수도회 출판작
2021년 10월16일~2022년 10월15일 발표작품
접수마감: 10월15일까지 마감 우편·이메일 접수
문의: 02)460-7626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내용: 낙태 종식을 목표로 40일 간 낙태 관련 기관, 또는 상징적인 공공장소에서 드리는 국제적인 기도운동이며 64개국 1천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
대상: 기도 장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신자면 누구나
때: 9월28일(수)~11월6일(일)
곳: 명동대성당 들머리(농협 건너편)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40days.forlife.or.kr)에서 참가를 원하는 시간에 신청 / 02)727-2354 생명위원회

용문청소년수련장 이용 안내

3만평 숲 속 넓은 잔디 운동장, 잣나무 그늘, 메타세콰이어 사잇길, 본당 야유회·연수·꾸리아 야외 행사·피정 등 기능 / 문의: 031)774-3587
각 단체나 반원 등 소규모 인원의 당일 피정·숙박 피정
렉시오 디버나 피정: 10월14일~16일, 10월28일~30일
향심기도 피정: 11월18일~20일, 12월9일~11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36차 미사 9월2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지역본당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중화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돌봄 노동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활동지원사) 마음 돌봄 피정

때, 곳: 10월29일(토) 10시30분~30일(일) 13시30분, 우이동 명상의 집 / 회비: 피정 3만원
인원: 20명 / 10월14일(금)까지 접수 마감
문의(접수): 02)924-2721, 2 노동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10월6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김태근 신부(일본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9월애 동행' 순교자 성월을 담은 미사

때, 곳: 9월25일(일) 15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손희송 주교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스탬프를 완성한 순례자 여권을 미사 당일 제출하시면 축복장을 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10월12일(수)까지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우편발송 가능합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2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50명 선착순 마감
때, 곳: 10월17일·10월24일·10월31일·11월7일·11월14일·11월21일·11월28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7회), 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
회비: 8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140646 (계)천주교서울대교구
교육내용: 변화된 아동 발달, 양육 태도와 그에 맞는 훈육·칭찬 방법, 말쓰고 함께하는 구체적인 신앙전수법 등 / 신청기간: 9월19일(월)~10월11일(화)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isenior.catholic.or.kr)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 문의: 02)727-2385, 2386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홍보위원회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 피아니스트 에드윈 김의 '마음의 눈'
대상: 누구나(선착순 300명) / 전석 무료
출연: 피아노 에드윈 김, 첼로 신호철, 팜페라테너 박종수 / 문의: 02)751-4105, 4103
때, 곳: 10월6일(목) 19시30분~21시,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구 종로동)
주최: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신청: 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이카데미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등(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예약): 02)727-2126(t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2 빈민사목위원회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CUM)' 입주자 모집

함께 꾸는 꿈(CUM)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셰어하우스 개념의 사회주택입니다
모집대상: 19세~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기타 형편이 어려운 청년
모집인원: 총 10명(남성전용 4명, 여성전용 6명)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 관리비(월 임대료 없음)
입주시기: 10월 입주 가능 / 문의: 02)777-7261
모집일정: 9월1일(목)~30일(금)
신청방법: 이메일(withcum@catholic.or.kr) 제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슬픔 속 희망찾기' 프로그램

10월 유가족을 위한 피정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대면 피정: 10월8일(토)~9일(일), 예수고난회 우이동 명상의 집
온라인 피정: 10월20일(목)~21일(금)
신청: 온라인 및 대면 피정 중 택 1
신청방법: 전화 및 홈페이지(3079.or.kr) 참조
문의: 02)727-2495 유가족 담당 수녀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17지구(강서) 성령기도회 초대 / 문의: 010-5513-9473

내용: 찬양, 묵주기도, 강의, 미사, 안수 / 강사: 박효철 신부
때, 곳: 9월27일(화) 13시~17시, 우장산성당

돌아보며 깨닫기

혼인 성소 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영성 심리상담 / 문의(예약): 010-3173-2665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때: 9월23일~25일·10월21일~23일 2박3일
곳: 명상의 집(우이동) / 문의: 02)990-1004
개인 피정(수시),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우리들의 행복한 축제(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대상: 길을 찾는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곳: 10월1일(토)~3일(월),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
회비: 3만원 / 홈페이지(pddm.or.kr) 참조
문의: 010-9816-007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때: 10월7일(금)~10일(월)·10월21일(금)~24일(월)
·11월4일(금)~7일(월)·11월18일(금)~21일(월)
곳: 도미니코 수도회 / 문의: 010-9363-7784 신글라라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봉헌한다."
(메시지 193년) / 강의: 이병근 신부(인천교구)
미사: 손희송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때: 10월3일(월) 10시~17시, 불광동성당
문의: 010-5361-2617 박성중 주무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7차 10월7일(금)~15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8차 11월11일(금)~19일(토) 010-3540-9001

제주 먼현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0월1일~3일, 10월18일~20일, 10월24일~26일, 11월18일~20일, 12월3일~5일
성지순례(추라도성지 포함)	11월5일~8일, 11월12일~15일

젊은이 가을 섬 피정

때: 10월21일(금)~23일(일) 2박3일 / 회비: 6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명창) /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5715-1702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11월21일~23일·12월31일~2023년 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수제 묵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4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성경속에서 나를 만나다 / 문의: 010-2037-9262

대상: 여성 신자 / 회비: 7만원(7회)
곳: 전교가르멜 수녀원(주최, 전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첫째 넷째주(화)	10월4일부터 10시~11시30분(대면)
둘째 넷째주(화)	10월11일부터 20시~21시30분(비대면)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 '참 신앙인의 길'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7천원) / 선착순 140명

9월23일~10월14일	신앙인이 된다는 것	이영제 신부
10월21일~28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계명	최정훈 신부
11월4일~11일	아무것도 나를	조동원 신부
11월18일~12월9일	바로 사도가 전해주는 위로와 권고	김상우 신부

예수회센터 프로그램 및 카페 봉사자 모집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영성수련, 하느님 사랑의 뜻을 찾기 위한 여정	현장강의: 매주(월) 14시~16시	김형철 신부
영의 식별 (Discernment of Spirits)	현장강의: 매주(목) 14시~16시	권오면 신부
예수회센터 이나시오 카페 신임 봉사자 모집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소정의 바리스타 교육 후 봉사시간 조정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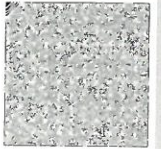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목요신학강좌 트랙 II(한국CLC)

때: 10월20일~11월24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회비: 8만원(대면·녹화강의) / 문의(접수): 02)333-9898

10월20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희완 신부
10월27일	역사적 예수는 누구인가	김진호 목사
11월3일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예수	이규성 신부
11월10일	코란 속에 나타난 예수	송해경 박사
11월17일	하늘나라 제자가 되기 위한 식별의 여정	정진만 신부
11월24일	예수의 팬(fan)에서 예수의 벗으로	현재우 박사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문의: 02)727-2472



미사 반주와 전례곡들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곳: 9월 첫째주부터 레슨 시작, 흑석동성당
문의: 010-8606-2168 제14동작지구오르간교육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9월27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새천년복음화학교 5단계 94기 수료특강 및 미사

내용: 말씀과 파견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9월24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세미나

때: 9월24일~11월19일 (토) 13시~16시30분(7주)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 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10명 이내) / 카톡ID: k_orff
때, 곳: 10월11일~11월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의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작가와와 만남

주제: 내면의 아이 만나기
지도: 문종원 신부 / 대상: 누구나(선착순 30명)
때: 10월25일(화) 10시~11시30분 / 회비 없음
곳: 성바오로수도회 본원 바오로센터
문의(접수): 010-3251-8400 바오로센터 사무실

모집

제9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13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아마투스 합창단 단원 모집

수시 모집 / 문의: 010-9338-5276 김지선 총무
곳: 가양 시니어스 타워 내 연습실
곡명: 가톨릭 성가곡 및 자유곡(악보 지참)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대~40대 후반 여성 교우(본당 제한 없음)
오디션: 9월25일(일) 13시 / 문의(문자): 010-8788-4781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 매주(금) 오후 7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미사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9월27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9월19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3호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월레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회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9월26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레미사

때, 곳: 9월19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교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 문의: 010-5818-8431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가정선교회 10월 행사

미사, 식수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첫 토 성모 신심미사	10월1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김용렬 신부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0월5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배광하 신부, 이현주 회장

인내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 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동청소년·성인 진로적성검사	다중지능검사, 자기조절학습검사, 인성검사, 대인지능을 통한 사회성 훈련 및 관계 회복

마리아의 종 수녀회 피정집

내용: 개인, 소그룹 피정(취사 가능)
곳: 마리아의 종 영성의 집(수원) / 문의: 031)227-8221, 010-6844-8221 마리아의 종 수녀회

혜화동성당 혼배미사 / 문의: 02)764-0221

혼인미사시간 매주(토) 11시~14시 / 혼인미사를 위한 대성전, 연회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완비
곳: 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도보 3분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임영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 프리마켓

핸드메이드 성물 등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초대합니다 판매금액의 10%는 어려운 청소년 가정에 기부됩니다
때: 9월24일(토) 12시~18시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
문의: 02)338-7832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유판단지 일림

한민족통기회 통일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9월27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문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개인상담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심리교육	모래놀이상담사과정 10월4일~18일(화) 10시~13시(3회), 토닥토닥 잘잘거야 심리여행 10월12일~11월23일(수) 10시~12시(7회)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구산성지 관리장 모집 / 문의: 031)792-8540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업무: 성지 시설관리 업무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방문·우편(우 1290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99) 및 이메일(gusan-hl@casuwon.or.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대상: 세례받은 분(교회기관 경력자 우대)
업무: 비서 및 사무 행정 업무 1명(1년 3개월 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9월27일(화)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성수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497-2651

인원: 주간·야간 각 1명(성별·연령 무관) 계약직
업무: 시설관리 및 유지, 방호, 미화 등 전반적인 관리실 업무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74,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제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9월24일(토) 14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9월25일(일) 9시	서울 본원(장충동)	010-8353-2323(문자 문의) / osb3@hanmail.net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9월25일(일) 14시	아프리카잠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파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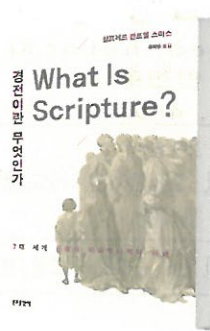


신간

흔들리는 마음에게

김용은 지음
싱글 | 224쪽 | 1만4천5백원
문의: 031)955-2687

저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인간답게 하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은 '영성'이라고 말한다. 초판이 영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이 개정판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성이 선물 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새 옷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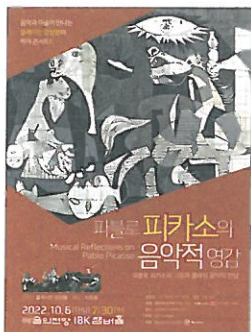


신간

경전이란 무엇인가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지음
분도출판사 | 584쪽 | 4만5천원
문의: 02)2266-3605

세계 7대 전통(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동서양 고전 전통)을 비교역사학적으로 탐구하면서 '경전'의 의미를 궁구하는 이 책은 세계의 주요 종교 전통들이 경전을 활용해 온 역사를 검토하면서 경전이 인간사에서 막중하고 때로는 가공할 힘을 발휘해 온 과정을 밝힌다.



공연

파블로 피카소의 음악적 영감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취학 아동 이상 관람가) / 문의: 02)444-4172
예술의전당이나 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주보 할인 20% 권증을 선택 구매 후 관람 당일 서울 주보의 본 안내문 지참 시 본인 1인에 한해 할인

클래식과 미술의 만남 <파블로 피카소의 음악적 영감>은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작품을 전문 도슨트의 친절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클래식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작품까지 실연하는 입체적인 공연이다. 10월 6일(목) 19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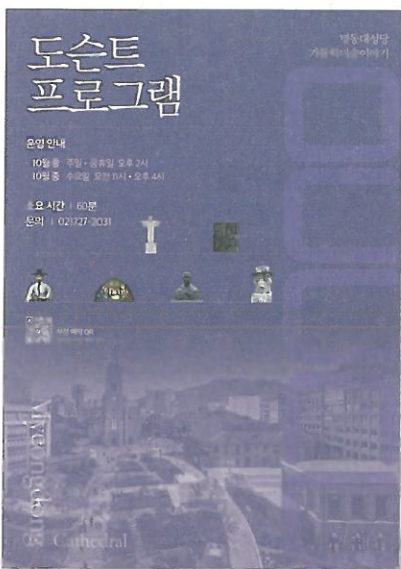


연주회

제22회 한국가톨릭작가협회 성음악 발표회

때: 10월 13일(목) 20시
곳: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문의: 010-4665-8898 / 전석 초대

한국가톨릭작가협회에서는 전례에 따른 오르간 곡에 대한 필요성과 보급을 위해 전례용 오르간 전주곡, 묵상곡, 후주곡, 타종곡, 오르간 솔로곡으로 구성된 오르간 연주회를 기획했다. 이번 연주는 제22회 성음악 발표회로 세계 초연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작곡으로 다양한 오르간곡을 연주한다.



명동대성당 가톨릭미술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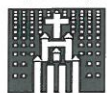
운영 안내: 10월 중 주일·공휴일 오후 2시,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소요 시간: 약 1시간 | 문의: 02)727-2031

명동대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으로 한국에 천주교 신앙이 전해진 이래로 그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들으며 명동대성당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예약 QR
인터넷 사전 예약 필수



제224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차명국(비오로) 010-8733-651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일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주일학교 개학미사

초등부 : 9월 17일(토) 15시

중고등부·반디 : 9월 18일(주일) 10시 30분

◎ 남성을드레아

일시 : 9월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성소후원회 미사 : 9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8월~9월).

성 명	세 례 명	구역/반
배경실	모니카	3-2
정정우	레지나	5-1
이창민	라우렌시오	5-4
백민혜	미카엘라	7-1
김연규	대건안드레아	7-1
나경엽	요셉	8-1
서진영	릴리안	10-2
이성민	마리아	10-7
심중우	루스티코	12-3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9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을드레아

일시 : 9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 9월 30일(금) 10시 미사 후

◎ 성모 신심 미사 : 10월 1일(토) 오전 10시

◎ 바오로 시니어대학 개강 안내

개강일시 : 10월 7일(금) 10시미사 후

수강신청 : 수강을 원하신 분은 성당사무실에
직접 신청

담당자 : 한성근 바오로 (010-7508-7031)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 연성회(남성70대이상 모임) 성지순례

장소 :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출발 : 10월 13일(목) 오전 8시 성당마당

문의 : 김무영 요셉 (010-3891-4300)

◎ 한푸름 청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301호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성모마리아의 정신인 기도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정영희 안나 (010-5006-1158)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김순교 안젤라 (010-2223-1345)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9. 1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5	849 (40.5%)	809 (38.6%)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67,603,300원

◎ 감사헌금 (9월 5일~11일)

황정숙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권정자	일십만원	강영자	일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강병숙	일십만원
김옥녀	오만원	명준호	일십만원
이지만	이십만원	성지호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4주일)

교무금 8,660,000원

주일헌금 4,063,700원

도계성당을 위한 2차헌금 2,832,000원

입당	285	봉헌	332, 216	성체	160, 170	파견	283
----	-----	----	----------	----	----------	----	-----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 라